

농가에서 하룻밤... '강진 푸소'에서 스트레스 푸소

미래세대, 유적지 답사 농사 체험하며 시골의 정·감성 경험을 36개교 6000명 예약...도시민 위한 '푸소 시즌2'도 추진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강진군의 대표 농촌체험프로그램인 '푸소(FU-SO)'가 다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광주 송의중학교 학생회 30명의 참여를 시작으로 올해 학생 푸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푸소(FU-SO)는 'Feeling-Up, Stress-Off'의 약자로 감성은 높이고 스트레스는 버린다는 뜻이다. '달아내다'는 의미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도 쓰인다. 학생들은 강진의 주요 문화유적을 답사하고 푸

소 농가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각 농가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농촌 체험을 통해 농촌 특유의 문화와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 학생 푸소에는 올해 36개교 6000여명이 예약을 마쳤다. 5월과 6월, 9월과 10월 등 중간고사가 끝난 이후 특정 시기에 수요가 높다는 게 강진군의 설명이다. 치열한 경쟁에 지친 미래세대에 시골의 따뜻한 정과 감성을 전하고 농가소득도 높이기 위해 지난 2015년 처음 시작된 푸소는 학교 수학여행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후 푸소는 공작자 교육, 일반 여행객까지 확대되며 군과 지역민이 힘을 합쳐 국내 지자체 최초로 시행해 성공한 체류형 관광모델 사례로 자리잡았다. 군은 민선8기 출범과 함께 푸소의 동력을 이용해 농촌으로 장기 유턴하는 도시민을 유치하고 주거공간과 일자리를 함께 제공하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푸소 시즌2'를 본격 추진 중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푸소는 강진군과 강진사람들이 오랜 기간 새로운 도전과 노력으로 쌓아 올린 고유한 브랜드"라며 "탄탄한 기반을 가진 푸소를 통해 관계 인구를 늘리고, 나아가 정주 인구로 이어지도록 푸소의 성공 신화를 다시 쓰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지난달 30일 강진 학생 푸소에 참여한 광주 송의중 학생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꽃향기로 힐링~ 장흥 하늘빛수목원 튜립축제

야생화 등 1000여종... 23일까지

장흥 하늘빛수목원이 오는 23일까지 '제10회 튜립 축제'를 개최한다. 튜립축제가 한창인 하늘빛수목원은 튜립뿐만 아니라 1000여 종의 꽃나무와 야생화가 수목원 곳곳을 수놓으며 화사한 봄 풍경을 담아내고 있다. 하늘빛수목원은 전남 제8호, 전국 22번째 민간 정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수목원 내에는 300여 종의 수목과 1000여 종의 다양한 초화류가 어우러져 있으며 수변생태 학습지로 각광을 받아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체험을 선사한다. 세계적 가족여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늘빛수목원은 약 10만㎡ 규모에 편백숲, 생태연못, 글램핑장, 물놀이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수목원 뒤편으로는 편백숲이 넓게 펼쳐져 있어 여유로운 산책도 즐길 수 있다. 주재용 하늘빛수목원 대표는 "튜립을 비롯해 다양한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눈부신 봄기운을 떨치고 있다"며 "제10회 튜립 축제에서 행복한 추억을 안고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장흥을 찾는 관광객들이 튜립축제가 한창인 하늘빛수목원 꽃길을 걷고 있다. <장흥군 제공>

담양 자치경찰제 안착 유관기관 협력 다짐

자치경찰실무협 올해 첫 정례회...치안시책 발굴 등 논의

담양군이 최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담양군과 담양경찰서, 담양교육지원청, 주민자치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정례회를 개최했다. 자치경찰실무협의회는 자치경찰제의 활성화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 주민의 안전을 목적으로 관계기관 간 협조·공조를 강화하

기 위한 협의체다. 담양군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따라 지난해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월13일 담양군과 경찰서, 교육지원청, 주민자치연합회와 담양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공동협의회장 김용진 담양군 참여소통실장, 허진호 담양경찰서 생활안전과장)를 구

성했다. 이번 첫 회의에서는 자치경찰사무 공모사업과 관련해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공동협의회장인 김용진 참여소통실장은 "이번 회의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생활에 와 닿는 군민 체감 치안시책을 발굴해 군민이 안전한 담양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장성 농산물 지역에서 생산·유통·소비

푸드플랜 구축 속도...생산자-소비자 선순환 체계 형성

장성군이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인 푸드플랜 구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첨단 장성로컬푸드직매장에서 전담, 장성군, (재)장성먹거리통합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각종 가공식품은 모두 '지역 먹거리'로 생산, 유통, 소비되는 과정이 안정화되면 생산자는 일정한 소득을 얻고 소비자는 신선한 먹거리를 구입하는 선순환 체계가 형성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푸드플랜은 이러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만드는 계획으로 장성군은 지역에 특화된 '장성형 푸드플랜'으로 농업인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고품질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관계자들은 장성형 푸드플랜의 추진 경과와 운영 사례를 공유한 뒤 남면 평산리 기획생산체계 우수농가를 방문했다. 이어 올해 7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 중인 장성군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찾아 진행 상황과 향후 운영 계

획을 청취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 복지시설 급식 등에 공급하는 통합물류시설이다. 농산물 납품 비중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면 장성지역 농산물 공급의 거점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강요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장성군이 지역적 한계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기획생산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추진으로 지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거동이 불편해 직접 장을 보기 힘든 주민 400여 가구에 지역 먹거리 꾸러미를 제공하는 농민축산식품부 주관 사업이다. 장성군은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장성군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화순 농가 정부 보급종 지원액 확정

벼 20kg 1만원·콩 5kg 4000원

화순군이 올해 정부 보급종 지원액을 확정했다. 군은 정부 보급종을 신청·공급받는 농가와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매입가격과 농가 공급가격의 차액을 일부 보전해주는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을 벌인다. 화순군은 2023년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 예산 9520만원을 확보했다. 차액 지원금은 벼 20kg 1포대당 1만원, 콩 5kg 1포대당 4000원이다.

예를 들어 지역 농가가 농협에서 2022년산 메벼 공급종을 20kg 1포대 구매할 때 공급가격 4만 4880원에서 1만원을 차감한 3만 4880원을 부담하면 된다. 콩은 5kg 1포대를 살 때 공급가격 2만 7800원에서 4000원을 뺀 2만 3800원을 내면 된다. 보급종 차액 지원은 지역농협이 농업기술센터로 벼는 오는 5월31일까지, 콩은 6월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의 보급종 우선 신청·공급업체와 일부 개별 농가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